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참고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산업부 남북경협팀장 송현민(010-3954-1512), 박영희 주무관(044-203-4066)

산업부 장관, 개성공단 피해업체 현장 방문

- 인천 송도 소재의 재영솔루텍[주] 방문 -

□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. 15(월) 13시30분 개성공단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인천 소재 금형 생산업체인 '재영솔루텍(주)'을 방문했다.

○ 재영솔루텍의 개성공단 자회사 "솔루텍지에스(주)"는 자본금 760만 달러로 지난 2005년 10월에 설립돼 모기업 제품을 임가공 해왔다. 또한 1천 1백여명의 북한 종업원을 고용하여 개성공단 내에서도 규모가 큰 편이다. (1천명 이상 고용기업은 10개)

□ 재영솔루텍 김학권 회장은 "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이중 삼중으로 여러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으므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"고 산업부 장관에게 호소했다. 김 회장은 입주기업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5명 중 한사람이다.

□ 주 장관은 "정부가 이미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여 긴급 유동성 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"하였고 "현장기업지원반이 1:1로 기업의 피해와 애로를 파악 중이므로 그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어질 것이다"고 밝혔다.

□ 또한 주 장관은 재영솔루텍이 "국내에서의 대체 생산은 임금 상승에 따라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 베트남 등 해외 생산지를 고려하고 있다"고 한데 대해 "Kotra 해외망을 가동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과 현지 행정 지원을 신속히 수행하도록 조치하겠다"고 약속했다.

□ 한편 "개성공단 기업들이 가동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납부가 늦어질 수 있다"는 점에 대해서, 주 장관은 모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기료 납부 현황을 조사하고, 납부 유예와 연체료 면제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 송현민 과장(☎044-203-4062), 박영희 주무관(☎ 044-203-40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2-15 13:32:55